M STORY

발행일 : 2019년 2월 7일

1_2월호

19년도 뉴스레터_ 건강한 모트렉스

회사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줄 'M STORY' 는 모트렉스가 발행하는 전자사보입니다.

CONTENTS

- 리더에세이
- 詩 와 休
- 사진으로 보는 모트렉스
- 부서탐방
- 모트렉스 소식
- 계열사 소식
- 비즈니스 성공 신화
- 사내문화 캠페인
- 릴레이 직원투고
- 업무의 정석
- 生生 생활정보
- 이달의 문화추천
- 참여광장

MOTREX

COVER STORY

이번 호 표지는 1,2월호의 주제 '우리 서로 밝게 인사해요!' 컨셉의 이미지로 동료에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하이테크서비스팀 엄태성 사원의 사진입니다.

2019년 1·2월호

M STORY

모트렉스 사보

발행일 2019년 02월 07일

편집인 총무팀 양승우 과장, 한수지 사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25

홈페이지 http://www.motrex.co.kr/

대표전화 070.4892.6000

팩스 02.6280.1170

제보 ssaul@motrex.co.kr / soojihan@motrex.co.kr

CONTENTS

리더에세이

03 "신년사" _ 대표이사 이형환

試와休

07 아침인사_ 전미나

사진으로 보는 모트렉스

08 모트렉스 in CES2019

부서탐방

12 CS센터 편

모트렉스 소식

19 2019년 시무식 및 증축 기념식 실시

20 2018년 하반기 법인장 회의 실시

계열사 소식

21 전진중공업 취임식 실시 / 인수 완료

비즈니스 성공 신화

22 '캘리사버'의 쓰레기 수거업체 이야기

사내문화 캠페인

23 우리 서로 밝게 인사해요!

릴레이 직원투고

24 "19년도 신년맞이! 덕담 공유" _ 통합개발팀 김지은 선임

업무의 정석

25 사내 업무관리서비스 'Mtask'를 소개합니다!

生生 생활정보

27 신기방기 아이디어 템!

28 2019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이달의 문화추천

30 도서 추천 _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31 영화 추천 _ 뺑반(뺑소니 전담반)

참여광장

32 이번 호 이벤트

리더에세이_ "신년사"

모트렉스 대표이사 이형환

모트렉스와 계열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공장 증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건설 관계자 여러분!

기해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힘찬 기운이 넘쳐나는 건강한 한 해 되시길 소망 합니다.

2014년 4월 가동을 시작한 천안 공장은 모트렉스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미래 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지난 3월 증축을 시작하여 오늘 시무식과 함께 준공 기념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치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다짐에 앞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지난해의 반성할 점과 성과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부문이 각자의 위치에서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의 모트렉스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한 해 였으며,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검토 하였던 중국을 중심으로 한 타 OEM 공략 역시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품 경쟁력 열세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트렉스는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그 길을 넓혀 왔습니다.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연구소는 RSE(Rear seat Entertainment)와 차세대 플랫폼을 기획하고 준비해 왔으며, HMS을 흡수 합병하여 기술을 내재화 하였고, 올해에는 RSE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진 중공업을 인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안정적인 수익 원 확보는 물론 건설 로보틱스 사업에 첫 발도 내 딛었습니다.

모비루스오토모티브는 리코시스 전장 사업부 인수와 디지털 클러스터 팀 신설을 통하여 현대 자동차 커스텀 클러스터 개발과 상용차 군집 자율 주행 클러스터 개발 등 특화 상품 개발을 준비 하였습니다.

모트레인은 기존 자동 변속기 사업이외에도 LPG 개조차 사업을 시작 하였고, 초소형 전기 자동차의 밧터리팩과 전기차 제어장치(VCU : Vehicle Control Unit) 개발 등 스마트카 사업에도 진출 하였습니다.

EAK 역시 공익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였으며, 차량 관련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카 사업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땀 흘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9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영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를 만드는 것도 극복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지난 해 치른 값비싼 경험을 교훈 삼아 재정비된 전사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존 사업 분야인 PIO사업 지속 성장은 물론 신규 매출처 개척과 판매상품 다양화로 잃어버린 2018년을 만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구개발 부문은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요소 기술 확보와 고 부가가치 제품을 적기 출시하여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며 새해를 시작 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찾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트렉스는 AV,AVN,RSE 등을 통한 주력사업 강화를, 모비루스오토모티브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텔레매틱스등 신 사업 개발을, 모트레인은 오토미션 사업, 전기차, 자율 주행차 등 스마트카에 대한 연구개발과 LPG와 CNG 개조차 사업 추진을, EAK는 보다 다양한 차량관련 데이터 축적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의미가 없으며 고객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과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구성원 개개인에서 시작해 조직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재 정의하고 실행하면 사업구조에 대한 혁신이 자연스럽게 진행 될 것입니다.

둘째, 지난해 선포하였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고 2020 Challenge One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부문이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책임경영 체제의 원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경영은 단순히 수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명료한 사업 목표 제시와 사업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추진 과정에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새로운 리더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은 바로 구성원 여러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조직문화 입니다.

회의 및 보고 문화 개선, 명확한 업무 배분과 지시,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하는 업무환경 조성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혁신은 시작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도록 창의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민첩한 조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 조직문화 혁신의 본질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슴에 품고 변화와 혁신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의 중심이며 개개인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올해 임직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큰 뜻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장 증축 건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두성 종합 토건, 한라 기공 및 큐빅 엔지니어링 등 모든 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모트렉스 임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대표이사 사장 이 형 환

시

시 한편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

새해가 밝아온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다짐한 목표들은 계획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마음먹은 것이 삼일(三日)을 넘기기 어렵다는 뜻의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사자성어가 있듯이 아마도 실천을 미루셨거나 벌써 포기하신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려면 시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의 마음먹기에 따라 하루가 즐거워지고 나아가 목표한 것에 대한 추진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목표한 것들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도록 내일 아침부터는 스스로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외치며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인사_ 전미나

매일
아침이 내게 다가와
눈을 깨우는 그때에
나는 느낌으로 안다

내 가슴속에는
살아가는 기쁨 옆에
삶의 허무함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끔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아침 햇살에도
슬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내일은
내가 먼저 아침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 볼까 한다

좋은 아침! 인사하면
좋은 아침! 하고
나를 반겨 웃지 않을까

그러면
내일이란 하루가
한결 상쾌할 것 같은 희망이 있다

사진으로 보는 모트렉스_ 모트렉스 in CES2019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올해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CE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가전, 차량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자사의 신기술들을 발표하는 자리로 미래기술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그 규모와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ES2019'가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우리 모트렉스가 첨단 사양의 제품들로 첫 참가하여 세계 유수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우리 모트렉스의 부스와 현장은 어떠했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트렉스의 이번 전시부스는 6m x 9m 규모의 기본 블랙&화이트와 우드패턴 포인트로 완성도 높은 부스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통행로에 인접한 이점을 활용하여 관람객 동선 유도와 활발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주요 전시품으로 'PD, DSM+DVRS, CMS+DSM, Digital Cluster, RSE, HUD' 등 자율주행과 탑승자 편의를 위한 첨단사양의 시스템들을 선보였으며 아우디, 테슬라, 미쓰비시, 닛산, GM 등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HUD와 Wireless Charger' 제품의 인기가 높아 양산여부 및 기능추가 가능 여부 등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신제품 위주의 컨셉으로 인해 주력제품군인 AV, AVN의 전시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4일간의 뜨거웠던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 하며,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평가와 만족도는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모트렉스는 첫 시작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엔 한단계 더 발전하길 기약하며 이날의 열정이 큰 결실로 돌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미국법인, 상품기술팀, 신사업개발팀, 개발전략팀, ADAS개발팀 그리고 끝으로 상품마케팅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탐방_ CS센터 편

부서탐방은 우리 모트렉스의 부서 곳곳을 파헤치는 시간! 타 부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신설된 코너입니다.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뉴스레터를 통해 타 팀에 대해 알아간다면, 우리 모트렉스人들의 협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윗줄 왼쪽부터) 노정호 과장, 김선호 사원, 이성한 과장, 김대현 사원, 임명식 과장, 임건식 사원, 김권기 대리, 이예리 사원, 엄태성 사원, 박헌용 과장, 노형민 사원, 김두용 과장

(아랫줄 왼쪽부터) 김창곤 차장, 이성표 차장, 강동우 부장, 백일기 이사, 이정환 부장, 정화열 차장

CS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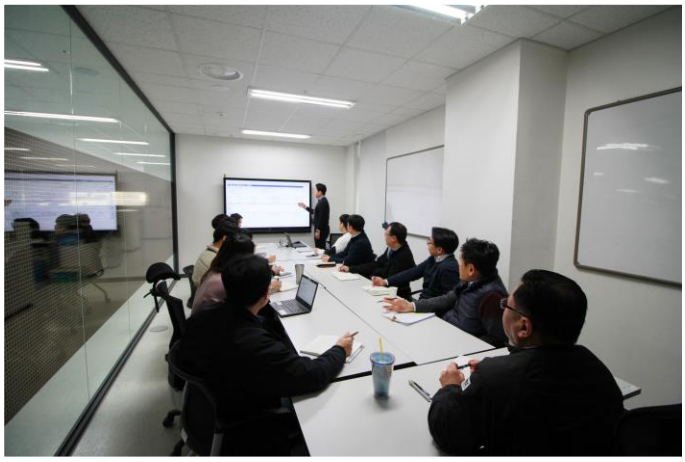
서비스(service)의 어원은 'servu(노예)'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시작된 것입니다. 즉,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모트렉스의 CS(Customer Satisfaction)센터는 고객만족 100% 실현을 목표로 고객과의 최 전방에서 쿠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의 기능/사양/품질/불량에 대한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 분석하여 절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고 고객이 제품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간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한 영업 매출 확대를 적극 지원합니다. 모트렉스의 제품은 순정대비 1등은 할 수 없지만 서비스는 전 세계 1등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조화는 "만족한 것 끼리의 조화보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조화"라고 지난 뉴스레터에서 보았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고객 만족을 위해 오늘도 CS센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립 조직으로 승격된 CS센터

2018년 말, 기존의 품질실 산하의 조직에서 CS센터 독립 조직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하 2개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비스에 빠질 수 없는 서비스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서비스부품운영팀과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객과 소통하며 최전선에서 해결하는 하이테크 서비스팀 이렇게 두 팀이 CS센터에 소속되어 함께 협업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턴 어라운드(Turn around)경영을 통해, 실적 개선과 더불어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 초반에 양산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서비스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트렉스의 CS센터는,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도에는 턴 어라운드(Turn around) 경영을 통해 실적 개선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변화기키는 것을 목표로 도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2019년 CS센터의 전략 방향은 글로벌 서비스 혁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도 향상'이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S센터장 백일기 이사님을 필두로 저희 22명 모두 함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들도 CS센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CS센터 Leader's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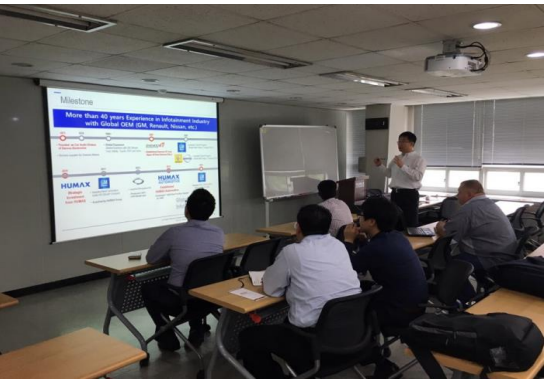
CS센터 하이테크서비스팀은?

모트렉스 CS센터의 하이테크서비스팀은 크게 3가지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첫째, 보증 정책 및 계약 업무로 해당 국가의 제품 보증 기간 검토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기 발생된 클레임 비용 공임, 운송 관세 등의 과징금에 대한 협의를 주관합니다. 그렇기에 서비스 계약은 서비스 비용 증/감으로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고객사와 끈질긴 협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비스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각 국가별 판매수량, 법인, 고객사 인프라 검토에 따라 효율적인 서비스 프로세스 정립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양산 품질 대응 및 안정을 위해 100일 작전 대응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SOP 이후 발생되는 품질 문제 집중 모니터링으로 현지 출장 대응, 비용 및 고객사 대응 업무 등으로 강도 높은 업무에 해당합니다.

셋째, 품질문제 고객 대응을 위해 QIR 대책서 대응, 이슈 트랙커 관리 및 본사&지사간 회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필드 강성 고객 대응으로 소비자 고발원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직접 현지 출장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CS센터 서비스부품운영팀은?

서비스부품운영팀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업무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품 사양관리를 위해 SBOM 작성 및 서비스 부품 유상 판매 단가를 관리합니다. 보증 기간 내 서비스 부품 공급을 위한 부품 사양 관리와 더불어 부품 표준화/공용화를 통한 업무 효율 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초도 양산 품질 대응을 위해 국가별 서비스 자재(Unit/Parts) 전진 배치 및 적기 서비스 자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문제 조기 대응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공급 일정에 맞추어 최적 물류 루트를 선정하고, 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을 통한 관세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거래 조건에 따른 유/무상 법인 오더 관리 및 재고 관리를 진행합니다. F/Unit 한도 관리 및 부품 수리를 통한 서비스 비용 절감, 공용 H/W 향지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및 보증 만료 고객 유상 판매를 통한 서비스 매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를 통해 긴급 오더 대응 서비스 자재 선 확보를 운영하여 적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CS센터의 자랑,
철저한 내/외부 역량강화 및 교육

1) 내부 역량 강화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해 20시간 필수 교육 이수 프로그램 이외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 SMAT(서비스경영자격)를 총 9명이 취득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외법인 방문 교육/고객사 초청]

2) 외부 역량 강화

2-1. 11개 법인 및 메가 딜러(고객사) 초청 및 방문 교육

2-2. 제조사별 품질 회의체 구성 운영

2-3. DIO 샘플 및 긴급 장착 지원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샘플 개조 장착 및 긴급 장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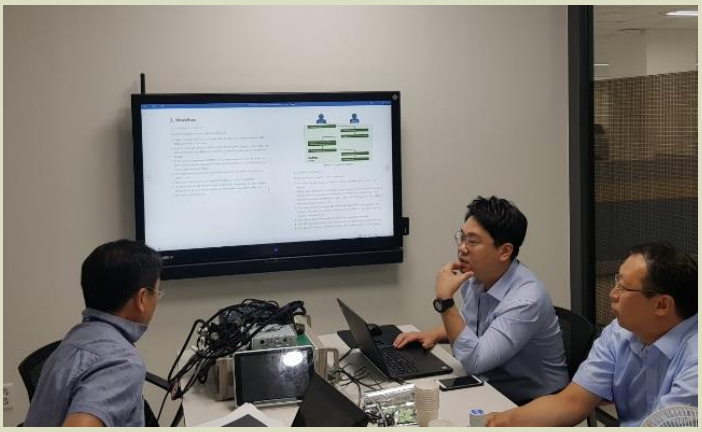
2-4. 에어컨 교육 및 레이디 팩 PPA 현지 교육 / AV, AVN 외 제품 국내 교육 및 현지 교육

[사우디PPA 현지 교육]

[DIO 샘플 장착 전 분해상태]

무엇보다 중요한, 타부서와의 협업

서비스 업무는 각 부서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샘플 장착, 품질 문제 해결 , 보수용 부품 조달,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청 받은 모든 이슈를 아래와 같이 취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1,179건의 협조 요청 문제를 등록하고 등록된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청부서	경영지원실	국내고객사	연구소	영업	완성차	재무관리실	천안공장	품질센터	해외고객사	해외법인	협력사	합계(건)
건수	22	221	54	75	9	57	12	128	86	488	27	1,179

단합 잘되는 CS센터!

팀내 단합은 서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월별 생일자 축하파티 및 주말 외부 활동 진행으로 미약 하나마 업무 스트레스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겨울 워크샵]

[해외법인 초청 교육]

[2018년 비전선포식]

[CS센터 회식]

[생월자 축하 점심식사]

잊지 못할 에피소드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습니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2~3개월 동안 해외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사우디 출장을 다녀온 최진광 사원이 감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르스가 의심되어 보건소로 즉시 방문하였고, 보건소에서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감기로 판정되어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무사히 귀가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각종 예방 접종 등을 진행하여 철저히 사전 예방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CS센터 영광의 주역들!

김창곤 차장

김창곤 차장은 평소 가족들과 자주 캠핑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봐도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능숙하게 즐기시는 화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산에도 자주 오르신다고 들어서 요즘같이 바쁜 일상 속에 몇 없는 진정한 캠핑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용 과장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모트렉스에 근무하며 정말 많은 분들과 인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모트렉스를 넘어 완성차 직원분들과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팀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 CS센터의 인맥왕 김두용 과장입니다.

엄태성 사원

엄태성 사원은 주말마다 인물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간다고 합니다. 인스타에 다양한 컨셉의 인물사진을 보고 DM으로 사진촬영 요청이 자주 들어오는 인기 작가입니다. 최근에는 웨딩 사진까지 촬영할 정도로 취미의 영역을 넘어, 촬영 전문가입니다.

김권기 대리

점심 시간에 메뉴 선택의 기로에서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올바른(?) 메뉴 선택을 해주시는 분, 바로 김권기 대리입니다! 이러한 그가 선택한 최애 식당은 김영희 동태찜 & 코다리 냉면 집이라고 하네요. ☺

CS센터의 분위기 메이커 TOP2?

박헌용 과장 / 김선호 사원

두 분은 모두 성격이 참 밝고, 항상 웃는 얼굴로 주변의 분위기를 업! 시키는 멋진 분위기 메이커들입니다. (술자리에서는 기본이구요..)

최고 케미를 자랑하는 팀원들은?

김대현 사원 / 임건식 사원

두명의 동기는 다른 듯 닮은 듯, 눈빛만 봐도 척척 아는 듯한 케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팀 내에서 뿌리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며 팀 분위기도 밝게 만들곤 합니다. 두 분의 지금과 같은 우정을 응원합니다! ☺

이번 1,2월호 뉴스레터는 기존과 다르게 센터 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이테크서비스팀과 서비스부품운영팀 두 팀이 소속되어 있는 CS센터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센터의 리더 '백일기 이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CS센터원들의 남다른 소속감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인터뷰 현장이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 탐방은 CS센터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기회이어서 인지 좀 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요청해도 흔쾌히 응해주신 위 사진들의 주인공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바쁜 업무 속에도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CS센터 동료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CS센터의 단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 기대하겠습니다.

모트렉스 소식 1

2019년 시무식 및 증축 기념식 실시

지난 1월 2일,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트렉스는 천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시무식 및 증축기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트렉스 및 계열사 전 직원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으며, 시무식과 함께 천안공장 증축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식순으로는 사회를 맡은 공장종합관리팀 최태희 과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총무팀 한수지 사원의 2018년 10대 뉴스를 통해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표이사님의 신년사, 증축 감사패 수여, 우수사원/근속자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천안공장에서 모든 임직원이 모여 의지를 다진만큼, 새해에는 우리 모트렉스와 계열사에 더욱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소식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번 시무식과 증축기념식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빛내 주신 전 임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트렉스 소식 2

2018년 하반기 법인장 회의 실시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18년도 하반기 법인장 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10개 거점지역 법인장과 영업본부, 연구소 팀장 약 25명의 참석 하에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점 내용으로는 지역특화상품을 논의하는 상품 전략방향성 회의와 법인 방향성 제고를 위한 영업 전략방향성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트렉스는 회의 시 논의된 아젠다를 중점으로 긴밀한 협업 및 소통을 통해 '19년도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계열사 소식1

전진중공업 취임식 실시 / 인수 완료

지난 12월 14일, 전진중공업 인수에 따른 대표이사 취임식이 충청북도 음성군 전진중공업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취임식에서 대표이사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모트렉스와 전진중공업 양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스마트시티 건설과 건설로봇 분야를 선도하며 4차산업혁명시대 생태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즈니스 성공 신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불굴의 의지와 전략으로 성공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라! '캘리사버'의 쓰레기 수거업체 이야기

미국 애리조나 주의 쓰레기 수거업체를 경영하던 캘리 사버는 캘리포니아 주의 오션사이드 시청의 쓰레기 수거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입찰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버의 회사는 애리조나 주에 있어 운반비용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 입찰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입찰을 따냈습니다. 그것도 경쟁업체들보다도 5달러나 더 비싼 톤당 43달러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캘리 사버는 입찰을 준비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션사이드 해변의 백사장이 점차 침식되어 간다는 것이었지요. 이 해변은 오션사이드 시가 자랑하는 주요 관광 수입원이고, 부동산 가치를 지켜주는 보루였던 것 입니다. 캘리 사버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오션사이드 시청에 단순히 쓰레기 수거 뿐 아니라, 해변을 보존하는 방안을 같이 제안했습니다. 마침 사버의 회사는 애리조나 주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은 온통 사막이었고, 모래투성이였습니다. 회사트럭으로 애리조나에 있는 풍부한 사막의 모래를 가는 길에 싣고 가서 해변에 쏟아 붓고, 빈차에는 쓰레기를 싣고 돌아오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 해변을 지키는 방법을 제공한다면 시청의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상은 적중했고 오션사이드 시의 공무원들은 처음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처리 사업자를 원했지만, 사버의 제안을 듣고 그 가치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캘리 사버에게 쓰레기 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캘리 사버의 쓰레기 수거업체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비록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내문화 캠페인 1_우리 서로 밝게 인사해요!

건강한 모트렉스를 만드는 작은 실천! 사내 문화 캠페인! 이번 호 주제는 '우리 서로 밝게 인사해요!' 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경제적 행위'라고 합니다. 어색함의 침묵을 깨고 먼저 건네는 인사는 마음을 열기 위한 노크 와도 같아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관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모트렉스人들도 스스로 먼저 인사하기를 생활화하여 긍정 에너지가 넘쳐나는 모트렉스가 되길 기대합니다.

릴레이 직원투고_ “19년도 신년맞이! 덕담 공유”

글 _ 통합개발팀 김지은 선임연구원

※ 직원투고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개발팀 김지은입니다. 2019년 신년을 맞이해 마련되었던 덕담 공유 이벤트에 뽑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온 가족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트렉스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새해 덕담 5가지 공유 드립니다. 신기하고 색다른 신년 덕담은 아니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꿀꿀함과 함께 희로애락의 있었던 지난 2018년! 돼지의 황금기운을 받아 2019년은 건강과 재물 모두 대박과 함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그 행운이 시작됩니다.

② 소장하고 싶고 탐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 이 순간을 즐기며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③ 2019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 황금돼지 기운으로 복인복과(福因福果)하여 모두가 행복한 한해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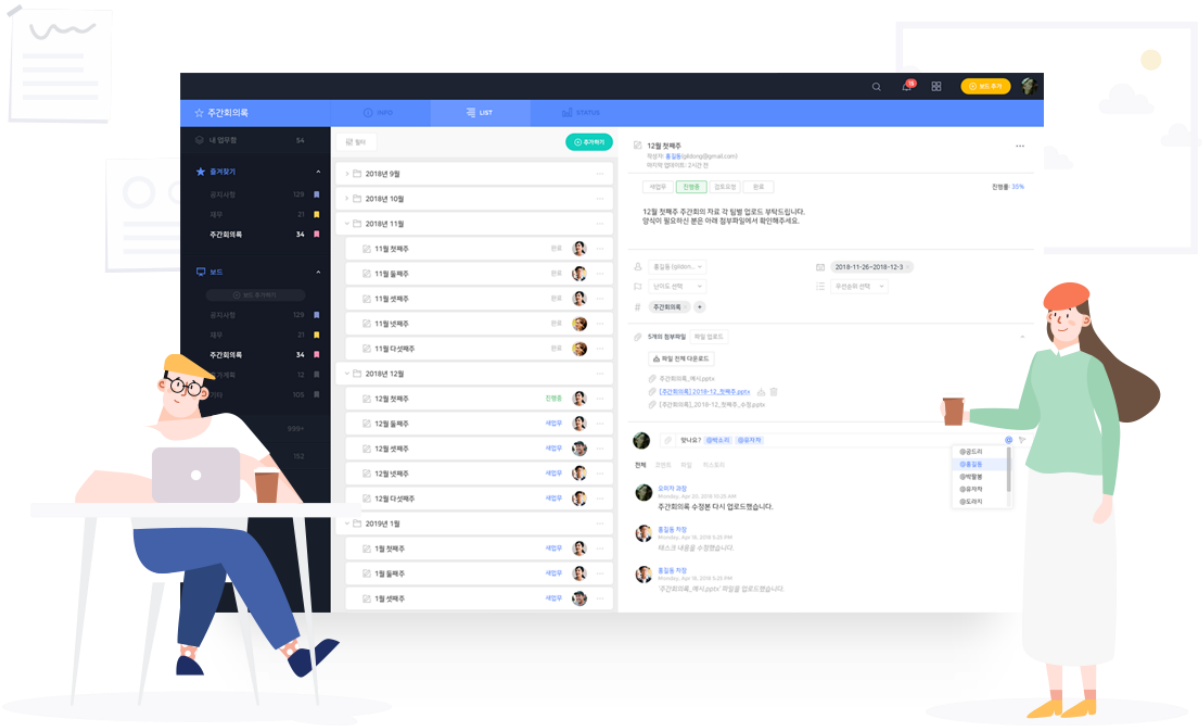
④ 드디어 새해가 왔습니다. 목표를 향했던 희망을 받을 준비하세요.

⑤ 항상 내일을 만들어주는 오늘처럼 새해에도 열정으로 자리를 빛내는 서로가 됩시다.

업무의 정석_ 사내 업무관리서비스 'Mtask'를 소개합니다!

글 _ 혁신팀

업무의 정석! 이번 호에서는 01월 31일자로 새로 도입된 'Mtask'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호에서는 2019년 1월 31일부터, 우리 모트렉스에 새롭게 도입된 사내 업무관리서비스 'Mtask'에 대해 소개합니다. 업무 노하우의 내재화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통합을 목적으로 사내 자체 개발한 업무관리 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Mtask'의 탄생 배경과 주요 기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 'Mtask'란?

'Mtask'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트렐로, 콜라비, 잔디와 같은 협업 툴을 모트렉스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시스템 상에 등록된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 보드를 만들어 교신 내용, 업무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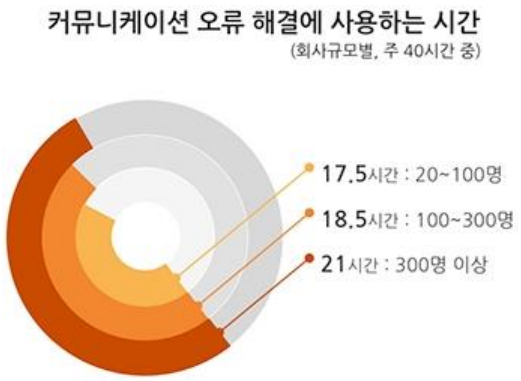
2. 'Mtask'의 탄생 배경

[열심히 일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똑똑하게 일해야 한다.]

작년부터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적 측면은 차치하고, 이로 인해 회사와 직원들 모두 줄어든 단위인력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효율개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이제는 보다 '똑똑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똑똑하게 일하는 것 = 협업(Collaboration)]

똑똑하게 일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협업**은 필수입니다. 협업은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 기존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과를 만들고, 혁신을 견인해 사람들이 공동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비용'** 때문입니다.



위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근로자는 주당 40시간 기준 평균 24.4시간을 커뮤니케이션에 할애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오류 해결에 사용하는 시간은 조직이 거대화 될수록 더욱 증가한다고 합니다. (300인 이상 조직의 경우 업무시간의 50%이상을 사용.) 이는 조직이 커질수록 서로의 의사, 감정, 생각 등을 왜곡없이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 상대방의 언어를 내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툴, 'Mtask']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으로 탄생한 것이 업무관리툴 'Mtask'입니다. 'Mtask'를 통해, 협업하는 구성원들의 업무 공감대와 노하우가 공유된다면 커뮤니케이션 효율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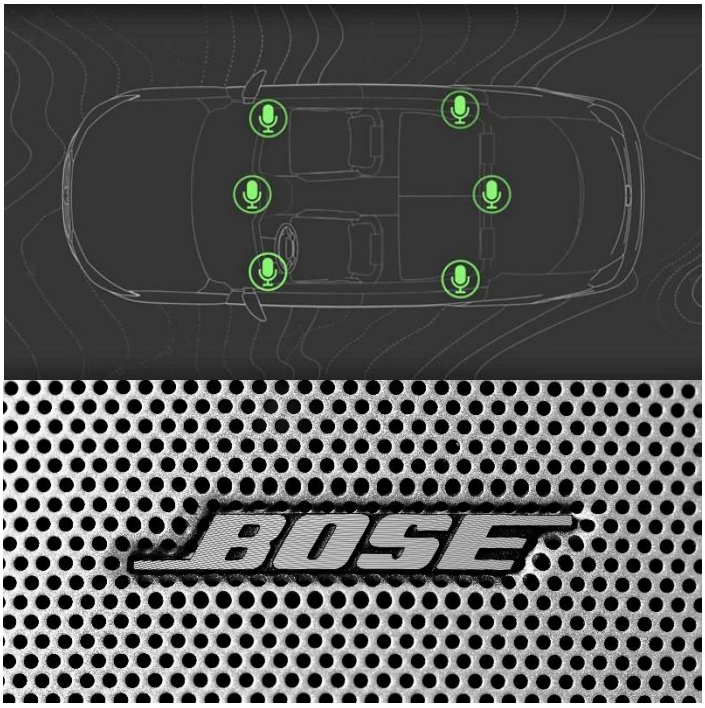
3. 'Mtask'의 특징 및 주요 기능

- **특징** : 1. 업무 누락을 방지하고 진행상태를 공유하며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제공
  2. 기존 이슈관리시스템의 복잡성 및 제약을 배제하여 쉽고 간결하게 사용 가능
  3. 개인, 부서, 계열사, 협력사 간 사용지원
  4. 업무별 커뮤니케이션 내역, 수정 이력 및 관련 파일 관리 기능

- **주요기능** : 보드 생성 및 임직원 초대 / 태스크 및 폴더 생성 / 업무상태, 담당자, 중요성, 긴급성, 완료기한 설정 / 태스크 접근제한 설정 / 내 업무함을 통한 할일 관리 / 코멘트 작성 / 코멘트 @ 멘션 이메일 알림 / 첨부파일 등록 / 태스크 변경 히스토리 관리 / 통합 검색 / 업무 진행률 그래프

生生 생활정보_ 신기방기 아이디어 템!

작은 생각의 변화가 혁신을 이룬다! 수 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통해 업무에 상상을 더해 보세요!



1. 'BOSE'의 차량용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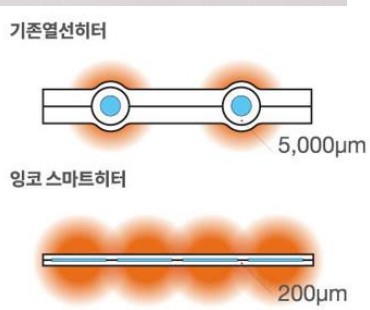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는 이번 CES2019에 음향 장비제조사인 'BOSE'에서 재미있는 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차량용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입니다. 이미 헤드폰으로는 그 기술을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나, 차량 시스템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차량에 설치된 4개의 가속도계가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을 파악하고, 차량 주변에 설치된 마이크는 도로 주변의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여타 노이즈 캔슬링 기능처럼 소음들을 상쇄시키는 소리를 발생 시켜 마치 소음이 없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기존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확대적용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펀테나 http://funtenna.funshop.co.kr

2.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INKO 스마트 히터'

겨울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 누구나 한번쯤 사용해 본 적 있을 충전식 손난로와 온열 찜질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두께가 두꺼워서 휴대하기가 불편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INKO'에서 출시한 '스마트히터'는 그 단점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많은 기능을 더 추가 했습니다. 원리는 인쇄전자 기술로 은나노 전도성 잉크와 PI,PET 필름을 사용해 원하는 형상 및 패턴 인쇄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1mm의 슬림한 두께와 방수, 전자파 제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 등으로 제작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 내장형이 아닌 보조배터리 연결 또는 USB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게 다소 아쉽습니다.

- 출처 : 펀샵 https://www.funshop.co.kr



生生 생활정보_2019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아는만큼 누린다! 최저임금부터 레몬법까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자동차 번호판 변경

신규 등록 차량 및 렌터카에 새로운 디자인의 번호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상시점은 9월부터 이며, 번호판 위조 홀로그램 및 정확한 번호판 식별을 위해 보호 필름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신규 번호판 시안 (미확정))

2. 음주단속 강화

작년 군복무 중 휴가 나온 군인이 만취운전자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윤창호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강도가 높아졌습니다.

3. 한국판 '레몬법' 시행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미만 차량에 대해 1월부터 중대 결함 2회, 일반결함 4회 수리 후 또다시 결함이 발생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이상 초과하면 차량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4. 주차공간 확대

최근 점점 커지는 차량에 비해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불편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축물부터 주차 편의와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공간 폭 기준이 2.3m에서 2.5m로 확대됩니다.

기타분야

1. 최저 시급 인상

새해 바뀌는 제도 중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최저임금은 1월부터 시간당 8,350원으로 작년보다 820원이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받으며,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6,800원을 받게 됩니다.

2. 입국장면세점 도입

6월부터 국민 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됩니다. 실제 입국장 면세점은 세관, 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후 본격 시행되고, 전국 공항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다만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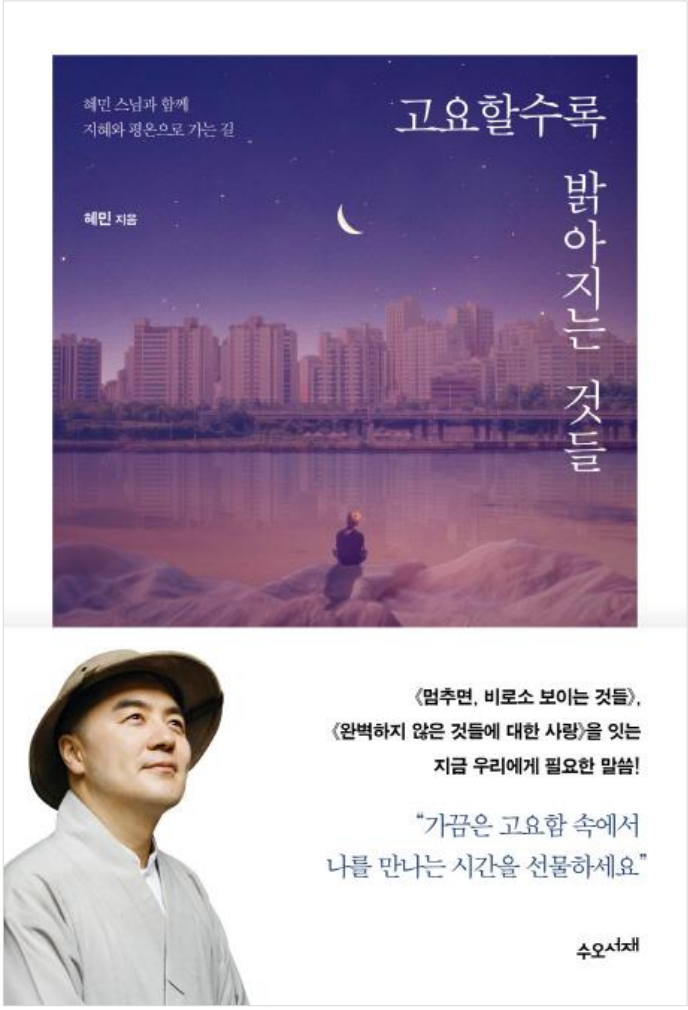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 됩니다.

4. 콘텐츠분야 스타트업 단계적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및 1년 이하 창업자(스타트업)를 지원하는 창업육성프로그램이 2019년부터는 3년 이하로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달의 도서_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 출판사 : 수오서재
- 저자 : 혜민
- 정가 :15,000원

내용과 함께 도서를 추천해 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soojihan@motrex.co.kr 로 발송.
(메일제목 : 뉴스레터 도서추천)

이번 1,2월호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혜민 스님이 펴낸 신작 에세이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는 현대인의 외로움, 가족 관계와 우정, 소소한 행복과 삶의 가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요함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내 안의 소망, 진정 꿈꾸는 삶의 방향과 가치를 찾는 계기, 혹은 오랫동안 눌러 놓았던 감정과 기억으로부터 치유되는 시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모트렉스 동료들도 신년을 맞이해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웠을 텐데요.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잠시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에게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책 소개

"가끔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복잡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

"이번 책에는 우리 안에 있는 고요함과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의 소망이라든지, 진정 꿈꾸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추구하고 싶은 삶의 가치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눌러 놓았던 감정이나 기억까지 되살아나 그것들로 부터의 치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수행자들이 깨닫고 싶어 하는 자기 본성도 밝아지게 됩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 출처 : 네이버 책 제공

이달의 영화 추천_ *뺑반(뺑소니 전담반)*

기대 반, 우려 반! 한국판 분노의 질주?

경찰 내 최고 엘리트 조직 내사과 소속 경위 '은시연(공효진)'. 조직에서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윤과장(염정아)'과 함께 F1레이서출신의 사업가 '정재철(조정석)'을 잡기 위해 수사망을 조여가던 시연은 무리한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오명을 쓰고 뺑소니 전담반으로 좌천된다. 알고 보면 경찰대 수석 출신, 만삭의 리더 '우계장(전혜진)'과 차에 대한 천부적 감각을 지닌 에이스 순경 '서민재(류준열)'. 팀원은 고작 단 두 명. 매뉴얼도 인력도 시간도 없지만 뺑소니 잡는 실력만큼은 최고인 '뺑반'. 이제 그들의 팀플레이가 시작되는데…

한국판 '분노의 질주'가 될 것인가 기대와 우려가 되지만, 연기파 배우 '조정석'의 첫 악역 연기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 자동차를 좋아하는 모트렉스人을 위한 추천작 입니다.

- **개봉일 :** 2019년 1월 30일
- **감　독 :** 한준희
- **주　연 : 조정석, 공효진, 류준열**
- **장　르 :** 범죄, 액션
- **등　급 :** 15세 관람가 / 133분

참여광장

칭찬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칭찬받을 동료를 추천해주세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억지로라도 칭찬거리를 만든다면 실제로 칭찬할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참여방법]

1. 주변을 슥~ 둘러본다.
2. 눈이 마주치는 동료에 대해 칭찬거리를 떠올려본다.
3. 그래도 안 떠오르면 상상을 해본다.(창의력!)
4. 결국 뭐라도 떠오르면 지체없이 사연을 보낸다.
5. 분량은 A4용지기준 3~4줄이면 OK!

[신청메일 & 기간]

soojihan@motrex.co.kr / 2019년 2월 28일까지

[응모자 상품]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잇!아이템'

뉴스레터 표지모델 모집!

2019년도 모트렉스 사보의 표지 모델이 되어 주실 임직원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신청은 아래 제보 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되며, 남녀노소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표지모델로 선정되신 임직원에게는 무료식사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소식 및 아이디어 제보는 ssaul@motrex.co.kr/soojihan@motrex.co.kr